

# 여수시 채무 대폭 감소...재정기상도 '맑음'

여수시가 민선6기 효율적인 살림살이로 채무를 대폭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은 1조4491억 원, 자산은 6조85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1%, 1.5% 증가했다.

◇채무 제로화...2014년 909억원→8억6000만원=2014년 909억 원에 달했던 채무는 4월 현재 8억6000만 원으로 대폭 낮았다. 잔여 채무인 하수도특별회계 8억6000만 원도 전액 국비로 상환 중이어서 여수는 사실상 채무 제로 도시가 됐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6기 4년 동안 900억원 상당의 채무 상환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히 감축하고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하는 여수시의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수시의 높은 재정건전성은 세입과 세출, 자산 규모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여수시의 2017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2016년 대비 13.1%(1675억원)가 증가한 1조4491억원을 기록했다.

세입증가 요인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가 꼽힌다.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업체의 영업 이익 상승으로 지방세가 2016년 대비 396억원이 증가한 2928억원이 걸렸다. 지방교부세는 361억원이 증가한 2805억원을 기록했다.

세출도 2016년에 비해 증가했다. 2017

2014년 909억→올해 8억대로 뚫...사실상 '채무 제로'

불필요 예산·비효율 사업 축소...주민 참여예산도 한몫



여수시는 초기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시책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 최근 열린 주민참여 예산학교 강의 모습. <여수시 제공>

년 세출규모는 2016년 대비 11.8%(1110억원) 증가한 1조5099억 원이었다. 1인당 재정지출액은 319만원으로 분석됐다.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849억원이었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상 여수시의 2017년 총자산은 6조857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1018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운영차역도 2016년보다 417억원이 늘었다. 2017년 총수익은 1조304억원, 총비

용은 8348억원으로 한 해 운영차역은 1956억원이었다.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반영도 한 몫=이 같은 여수시의 사실상 채무 제로화 성과는 초기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적극 독려한 시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수시는 임기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예산 사용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

예산편성권 부여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1억원씩 총 6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나 CCTV설치 등 민원해소 사업에 치우쳐 있었다.

시는 예산편성권 부여 등으로 미래·비전이 담긴 큰 규모의 사업과 주요 정책,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단계까지 위원들의 참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주민 213명으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구성을 완료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 본격적인 제도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재정분권 흐름과 발맞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민선 6기 출범후 지난 4년 동안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사실상 채무 제로 도시로 만들 수 있었다"며 "재정규모가 대폭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시 재정규모를 더욱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주민제안사업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여수 시민이 진정 행복한 시민중심 행정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시 민관협력 '희망하우스 9호' 준공

여수시가 어려운 주거환경에 놓인 지역 후원을 위해 민간후원을 이끌어 내면서 함께 여수시 9호 희망하우스를 준공했다.

이번 9번째 희망하우스의 현판식은 지난 11일 주철현 여수시장과 이오식 삼남석유화학 공장장, 화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여수시 희망하우스'는 여수시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하나로 민간 후원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민간 27개 기관으로부터 1억3500여만원의 후원을 연계하는 성과를 냈으며 지금까지 9곳의 희망하우스를 준공했다.

이번 9번째 희망하우스의 주인공은 신장지원을 받고 있는 아들을 돌보는 화양면 장수마을 김모(70) 할머니 가정으로 그동안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주택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김 할머니 주택 수리를 위해 삼남석유화학 사회봉사단의 후원(1200만 상당)과 여수시 노인복지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삼남석유 봉사단의 지붕교체 공사와 도배, 장판 설치, 욕실·주방 개보수, 싱크대 교체, 전기시설 정비 등 대대적인 집수리가 완료될 수 있었다.

특히 삼남 봉사단이 희망하우스 9호 주민이 시제장으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 주택 내 안전계단을 설치하면서 감동을 안겼다.

여수시는 앞으로 정기적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과 함께 주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시 희망하우스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환경의 지역민들이 쾌적하고 더 좋은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성과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지역관광발전 위한 싱크탱크 될 것"

여수시관광협의회 정기포럼 갖고 본격 활동 나서

1500만 관광도시 여수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출범한 (사)여수시관광협의회가 정기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관광협의회가 지난 11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기 포럼을 갖고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송영진 관광협의회 공동회장과 민병인 히든베이호텔 총지배인, 이승필 GS칼텍스예울마루 관장, 정태균 여수관광두레 PD 등 그동안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해 온 관광협의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청강연으로 정희선 청암대 교수가 '여수 관광 현주소와 미래관광정책'

을, 송창훈 여수해양경찰서장은 '해양관광과 해양안전'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정희선 교수는 "여수관광시장 평가 비교 분석 결과 모든 부분에서 수치가 상승했다"며 "방문객의 분산화, 공무원 지원파트화, 주민 자율화, 프로그램 차별화와 세밀화, 융합화,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수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관광의 시간과 공간 활동에 대한 정책제안'도 제시했다.

송영진 여수시관광협의회 공동회장은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시민중심의 관광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관광협의회는 기



지난 11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소속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여수시관광협의회 정기 포럼이 열렸다. <여수시관광협의회 제공>

획운영분과(위원장 송영진), 관광마케팅분과(위원장 정태균),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이승필), 숙박업분과(위원장 민병

인), 외식업분과(위원장 박기장)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임산부·어린이 위한 특별한 태교음악회

여수시립국악단 19일 공연

여수시립국악단이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태교음악회를 마련했다.

16일 시립국악단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7시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국악으로 만나는 태교음악회 '어화동동' 공연이 임산부와 아이들을 초대해 가운데 무대 위 오른다.

이번 특별 기획공연은 권인홍 여수시립국악단 단무장이 연출하고 노석기 상임 단원이 지휘를, 박은애 수석 단원이 안무를 맡았다.

시립국악단은 기악의 합주와 무용, 장악의 하모니로 생명 탄생의 신비롭고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또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는 다양한 태교 음악도 선보인다.

공연 중에는 시민들의 임신과 출산 사연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갈 계획이다.

공연 입장권은 좌석 구분 없이 1000원이며 (사)한국예총 여수지회(061-642-7466), 청음악기사(681-6513), 비엔나레코드(681-4342)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임신부는 무료로 공연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연이 임산부와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